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96期(2026.06.26) WWW.MINGHUI.ORG

한글판 1060호 minghui.or.kr



▲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미국 국기가 세 차례 게양돼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창시자 리홍쯔(李洪志) 대사(大師)를 표창하고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했다.

주요 내용

- 【해 외】 미 상원 444호 결의안 통과, 중공 반인륜 범죄 규탄
- 【해 외】 美상원 외교위원회 통과된 S.4009 파룬궁 보호법
- 【수 련】 명혜망 설립 27주년: 어둠 속의 등대
- 【평 론】 12명 흑리의 서로 다른 운명에서부터 말하다
- 【문 화】 진정한 중화문화는 정치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

〈목차〉

■ 해외종합

미 상원 444호 결의안 통과, 중공 반인륜 범죄 규탄	3
美상원 외교위원회 통과된 S.4009 파룬궁 보호법	5
션원, 6월 토론토 복귀 확정... 국회의원, 놀라운 용기와 헌신에 찬사 보내	9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12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18
---------------------------------	----

■ 수련교류

내 근본 집착을 찾았다	20
연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집착심을 없애다	30
천목과 숙명통 공능이 있는 수련생에 대한 일깨움	35
명혜망 설립 27주년: 어둠 속의 등대	40
자신을 실증하는 마음과 과시심에 대한 작은 인식	44

■ 시사평론

12명 흑리의 서로 다른 운명에서부터 말하다	48
--------------------------------	----

■ 문화예술

진정한 중화문화는 정치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	56
---------------------------------	----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 상원 444호 결의안 통과, 중공 반인륜 범죄 규탄

[명혜지창](왕잉 기자 편역 보도) 2026년 6월 16일, 미 상원은 중공 및 그 수괴가 기만적인 수단으로 세계 평화와 안보를 파괴하고 반(反)인류 범죄를 기획, 실행한 것을 규탄하는 제444호 결의안(S.Res.444)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중국공산당(중공)이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범죄 조직이라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미 연방 상원의원 릭 스콧이 발의했다. 결의안은 시진핑(習近平)과 중공이 강제노동, 소수민족에 대한 제노사이드(집단학살), 초국가적 억압 및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포함해 장기간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스콧 상원의원은 상원 표결에 앞서 연설을 통해 중공은 미국의 생활 방식, 세계 평화와 번영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중공이 시진핑 통치하에 특수한 형태의 악을 형성했으며, 그 목표는 세계를 통제하고 그들의 야망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을 없애는 것인데, 그 대상이 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가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콧은 중공이 장기간 거짓말, 기만, 절도 및 억압을 통해 통치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중공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제기구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유포해 전 세계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규탄했다. 또한 그는 중공이 펜타닐 전구체 화학물질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해 마약 위기로

수만 명의 미국인이 사망한 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 스콧은 중공이 수십 년 동안 불공정 무역 관행, 환율 조작 및 대규모 지식재산권 절도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해 수많은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제 문제와 관련해 그는 중공이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초래한 환경 파괴와 정치적 강압을 언급하며, 베이징 당국이 자신들의 행위가 현지인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결과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 문제에 관해 스콧은 중공이 신장(新疆)에서 위구르족을 상대로 제노사이드 정책을 실시해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을 감금 시설에 가두었다고 규탄했다.

그는 또한 특별히 중공이 장기간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한 것을 언급하며 “중공은 파룬궁수련자를 포함한 정치적 이견자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시진핑이 총서기로 재임하는 동안 공산 중국은 줄곧 정치적 이견자들의 장기를 적출해 왔으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파룬궁수련자의 장기적출이라고 밝혔다.

그는 말했다. “중공, 특히 시진핑의 폭정 통치하에서 특별한 형태의 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통제하려 하고 있으며, 그들의 관점에서 이는 자국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나서서 다음 세대 미국인의 미래를 수호해야 합니다.”

그는 중공이 대만과 필리핀 등 미국의 동맹국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군용기를 빈번히 파견해 대만 주변 영공에 진입시키며, 북

한, 이란 및 탈레반 등의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콧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서방 사회는 중국이 경제 발전 이후 자유화로 나아갈 것이라 기대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국제 자본이 중국에 유입되면서 객관적으로 중공의 군사적 확장, 경제 발전 및 제노사이드와 반인류 범죄 실행을 돕는 결과를 낳았다.

연설이 끝난 후 상원은 만장일치로 제444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중공이 기만적인 수단으로 평화와 안보의 전망을 파괴하고 반인류 범죄를 기획 및 실행한 것을 공식적으로 규탄하는 한편, 중공이 장기간 자행해 온 일련의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규탄했다.

결의안은 중국인들을 확고히 지지하며,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이 부여한 제재 조치를 포함해 중공 관리들에 대한 적용 가능한 모든 제재 권한을 행사할 것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美상원 외교위원회 통과된 S.4009 파룬궁 보호법

[명혜지창] 2026년 6월 17일, 미국 상원 외교관계위원회는 “파룬궁 보호법안(S.4009)”은 이제 상원 전체 표결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법안은 올해 3월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Ted Cruz)와 오리건주 민주당 상원의원 제프 머클리가 공동 발의했으며, 6월 1일에는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 애덤 시프(A

dam Schiff)의 공동 지지를 받았고, 6월 9일에는 인디애나주 공화당 상원의원 토드 영(Todd Young)의 공동 지지를 받았습니다.

6월 17일 위원회 투표가 끝난 후, 오리건주를 대표하는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제프 머클리는 “우리는 이 끔찍한 행위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진정으로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며 “이것은 확실히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만행 중 하나입니다. 단지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살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4009호 법안 요약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동 지명한 이 ‘파룬궁 및 생채 장기 피해자 보호법’(Falun Gong and Victims of Forced Organ Harvesting Protection Act)은 미국 정부가 외국인 명단을 작성하여 고의로 장기 생채 장기 적출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들을 나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에 권한을 부여할 것이며,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은 미국 내 개인 또는 기관과의 거래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입국 금지를 포함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관련 인사의 기존 비자가 취소되고 미국 이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상실됩니다.

S.4009호 법안 수정판

6월 15일, 상원의원들은 법안을 수정하여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오랫동안 중국 장기 이식 시스템에 대해 우려해 온 점과 관련 문제에서 중국공산당 정권의 지속적인 투명성 부족 상황을 열거했

습니다.

수정 내용은 미국 국무부의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인용하여 종교 단체, 특히 파룬궁 학습자와 위구르족 집단이 자신이 살아있는 장기를 적출하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뉴욕시 변호사 협회의 연구를 인용하여 “중국(중국공산당)이 양심수에게 지속적으로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은 미 정부에 조사와 보고서 제공을 요구

법안은 미국 정부가 파룬궁 수련자 등 집단과 관련된 사례를 조사하고,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동의 없이 또는 투명성이 결여된 장기 획득 및 이식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보건복지부 장관, 미국 국립보건원(NIH) 원장 및 정보부 관련 책임자와 함께 중국의 장기 이식 정책과 실천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강제 장기 적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파룬궁 연수생, 다른 양심수 및 관련 피해 집단을 포함한 중국의 장기 이식 정책을 요약해야 합니다.

보고서 내용은 또한 중국의 역대 장기 이식 수, 자원봉사 기증자 데이터, 장기 출처 및 획득 시간 평가, 관련 일정이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지 여부, 그리고 지난 10년간 미국이 중국 장기 이식 연구 프로젝트에 지원한 관련 보조금 상황을 포함할 것입니다.

의원, 중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초당적 노력

2025년 7월, 상원의원 토드 영은 파룬궁을 지지하는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중국공산당은 두려움과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중국 국민의 권리를 억압해 왔습니다. 소수민족과 종교적 소수민족, 파룬궁 학습자를 포함한 신앙 집단은 상상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하고 구금되며 침묵을 지키고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을 박탈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앙과 문화를 극단주의나 테러리즘으로 규정하는 고압적인 법률의 위장 하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문화를 말살하고, 종교를 억압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토드 영 상원의원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용기, 목소리, 그리고 평화로운 폭력에 대한 저항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진리, 자유, 존엄성을 꾸준히 수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올해 3월 성명에서 “중국(중국공산당)의 탄압과 인권 침해, 그리고 취약 계층의 장기를 생채적출하는 행위는 계속해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나서야 하며, 우리의 초당적 노력은 중국(중국공산당) 정부의 인권 침해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원, 6월 토론토 복귀 확정... 국회의원, 놀라운 용기와 헌신에 찬사 보내

[명혜지창] 2026년 4월, 토론토 공연 예정이었던 선원 공연단은 중국공산당의 허위 폭탄 테러 협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공연이 취소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예술가들과 주최 측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선원은 6월 말 토론토 포시즌스 센터에서 공연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캐나다 국회의원들의 지지와 찬사를 받았습니다.

연방 의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할 데 없는 용기를 보여주다

보수당 소속 제임스 베잔 예비 국방부 장관 겸 국회의원은 선원에 축하 서한을 보내 지지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베잔 의원은 축하 서한에서 “최근 폭탄 테러 위협으로 공연이 중단되는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연을 이어가며 놀라운 용기와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선원이 춤과 음악을 통해 전하는 “진심, 자비, 관용”이 보편적 가치이며 캐나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는 언제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문화적 다양성을 수호해 왔습니다. 선원의 공연은 지역 사회를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유 수호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중국공산당의 초국가적 위협에 단호히 맞서는 법안 추진

베잔 의원은 또한 축하 서한에서 중국공산당의 오랜 기간 지속된 파룬궁 수련자 박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이 캐

나다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마그니츠키법 활용: 인권 침해에 연루된 외국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옹호하고, 그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C-219 반(反)초국가적 탄압법 발의: 이 법안은 캐나다 내에서 타인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외국 공무원 또는 그 대리인을 엄중히 처벌하여, 그들의 영향력이 캐나다로 확산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원 20주년: 국회의원들, 예술적 향연을 기대하다

보수당 소속 카일 시백 의원은 선원의 2026년 시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시백 의원은 올해가 선원 창립 20주년이라고 언급하며, 지난 20년 동안 선원은 아름다운 중국 전통 무용과 음악으로 전 세계 수많은 관객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토론토 파룬따파 협회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처럼 훌륭한 공연을 토론토에 다시 선보일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캐나다에서 매년 이 풍성한 문화 축제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원 토론토 공연 정보 (2026년 6월)

공연 날짜: 2026년 6월 25일~28일 (5회 공연)

장소: 포시즌스 센터

공연 내용: 약 20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본 공연은 고전 중국 무용과 역동적인 배경을 통해 전통 중국 문화와 다양한 왕조의 양식을 선보입니다.

공식 티켓 예매 웹사이트: <https://www.ShenYun.com/Toronto>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세계로 전파된 지 34주년을 축하하는 즈음,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와 델라웨어주 연방의원 세 명의 초청으로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미국 국기가 세 차례 게양돼 파룬따파 창시자 리홍쯔(李洪志) 대사(大師)를 표창하고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했다. 미국 국회의사당의 국기 게양 인증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존경하는 미국 상원의원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의 요청에 따라, 파룬따파가 1992년에 전해진 후 34주년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고 동시에 제27회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파룬따파 창시자 리홍쯔 대사님을 위해 이 국기를 게양했습니다.” 상원의원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는 또한 상원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 미국 국기가 2026년 5월 13일 미국 국회의사당 상공에 게양됐음을 증명합니다. 파룬따파 창시자 리홍쯔 사부님을 표창합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하원의원 크리스토퍼 델루지오와 델라웨어주 연방 하원의원 세라 맥브라이드도 미국 국회의사당에 미국 국기를 게양해 파룬따파 창시자 리홍쯔 대사를 표창할 것을 요청했다.

6월 12일 저녁,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시에서 성대한 ‘개막 축하 퍼레이드 및 불꽃놀이(Opening Celebration Parade & Fireworks Show)’가 열렸다. 2026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의 공식 개최 도시 지지자로서, 퓨얼럽 부족은 이번 커뮤니티 퍼레이드로 현지 월드컵 축하 행사의 서막을 열었다. 시애틀과 캐나다 밴쿠버에서 온 파룬궁수련자들로 구성된 퍼레이드 대열은 초청을 받아 참가했으며, 전체 퍼레이드 행렬에서 독특하고 상서로운 풍

경을 이루었고 가는 곳마다 박수와 감탄이 쏟아졌다.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에서 연례행사인 콜럼버스 예술제(The Columbus Arts Festival)가 열렸다. 오하이오주 파룬궁수련자들은 부스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하고, S. 4009호 ‘파룬궁 및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 법안 지지를 호소했다. 적지 않은 시민이 관련 정보를 알아본 후 청원에 서명해 오하이오주 상원의원들이 S. 4009호 ‘파룬궁 및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에 공동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

6월 18일, 미국 동해안 최대 1일 거리 시장인. 펜실베이니아주 메카닉스버그 제96회 주빌리 데이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이 마련한 정보 부스는 많은 시민의 발걸음을 멈추고 알아보고 앞다투어 파룬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연방 하원의원 스콧 페리(Scott Perry)가 이날 행사장을 찾아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지지를 표했다. 페리 의원은 “오늘 파룬궁수련자들과 지지자들이 우리와 함께 주빌리 데이를 축하하는 모습을 보게 돼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대중에게 중공의 박해 진상을 폭로하는 행동에 대해 페리 의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장기적출, 노예 노동, 종교 탄압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런 일들은 미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관련 정보가 매일 뉴스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 행사가 대중이 진상을 알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주지사 후보이자 현 펜실베이니아주 재무장관인 스테이시 개리티(Stacy Garrity)도 축제 현장을 찾았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방금 파룬궁 보호 관련 법안 심의를 통과시켰다는 사실과 파룬궁

수련자들이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진상을 알리며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개리티 장관은 지지를 표했다.

6월 12일, 핀란드 헬싱키는 연례 ‘헬싱키 데이(Helsinki Day)’를 맞이했다. 당일, 수백 개의 무료 행사가 도시 곳곳에서 열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부둣가 옆 해변 공원(Esplenade Park)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은 공법 시연, 진상 패널 및 서명 운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중국공산당(중공)의 27년간 지속된 박해와 생체 장기적출 등 심각한 인권 범죄를 폭로했다. 행사 현장에는 인파가 끊이지 않았다. 일부는 발걸음을 멈추고 수련자들의 평화로운 연공을 지켜봤고, 일부는 다국어 진상 현수막 앞에서 정보를 꼼꼼히 읽었으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스에 와서 서명하며 중공의 파룬궁 박해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중학생 헤이노(Heino)와 일마리(Ilmarinen)는 자발적으로 부스에 와서 수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서명했다. 그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중국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소개한 적이 있어서 파룬궁이 박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자발적으로 와서 서명하며 지지를 표했다고 말했다.

6월 13일, 연례행사인 ‘로터리 빌리지 데이(Rotary Village Day)’가 잉글랜드 서리 카운티 동남부의 애슈테드에서 열렸고, 파룬궁수련자의 부스는 많은 사람의 발길을 끌었다. 학생부터 전문가, 특수 아동을 둔 가정부터 은퇴한 노인까지 많은 사람이 공법을 체험하고 진상을 알아본 후 깊이 감동받았으며 파룬궁을 더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파룬궁 정공(靜功)을 체험한 후 시에나(Sienna)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그녀는 소감을 나눴다.

“방금 명상할 때 저는 온몸이 편안하고 평온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고 전신이 이완돼 마치 영혼의 먼지를 씻어낸 듯했어요.” 로지 역시 기쁘게 말했다. “이번 체험은 정말 훌륭했어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한 어머니가 ADHD를 앓는 아들을 데리고 부스 앞으로 와서 수련자들이 연공과 정공을 시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수련자의 조용한 안내 하에 소년은 정공 동작을 따라 배우려 시도했다. 처음에 그는 여전히 약간의 불안과 초조함을 보였지만, 부드럽고 상서로운 연공 음악이 천천히 흐르자 현장 분위기는 점차 조용해졌다. 뒤이어 뜻밖의 장면이 나타났다. 소년의 몸이 점차 이완되더니 천천히 조용하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 수련자의 동작을 집중해서 따라 하려 했다.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와 행사의 떠들썩한 분위기가 마치 이 순간 모두 차단된 듯, 그는 보기 드문 평온함과 집중된 상태를 보여주었다. 어머니는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주시했고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점차 믿기 힘든 표정으로 변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시울을 붉히며 오랫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고 마치 눈앞의 변화를 믿지 못하는 듯했다. “아이는 한 번도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감격해서 말했다. “정말 너무 신기하네요.”

6월 13일, 벨기에 파룬궁수련자들은 다시 안트베르펜 메이르 상업 거리를 찾아 행사를 열고 파룬따파의 상서롭고 평온한 5장 공법을 시연해, 내면의 평온과 안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젊은 여성 야나가 발걸음을 멈추고 파룬궁수련자들의 공법 시연을 지켜보았으며, 부스 앞에서 수련자들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이번 우연한 만남을 통해 오랫동안 잊고 있

있던 선의와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다시 느꼈다고 말했다. 파룬따파가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을 핵심 원칙으로 삼는다는 말을 듣고, 야나는 “이러한 가치가 바로 지금 사회에 부족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6월 13일, 네덜란드 순회 진상 알리기 팀은 노르트홀란트주 힐베르섬에 와서 정보의 날 행사를 열고 진상 전시판, 전단지 배포, 공법 시연 등의 형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파룬궁의 건강 효과 및 발원지인 중국에서 장기간 잔혹한 박해를 받는 진상을 알렸다. 시민들은 파룬궁수련자의 방문에 큰 열정을 보였다. 어떤 이는 수련자에게 물을 건넸고, 어떤 이는 기부하려고 했으며, 어떤 시민은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다.

6월 10일, 16일, 17일, 네덜란드 하원 여름 휴가 전 마지막 2주 동안 파룬궁수련자들은 하원 및 인근 지역에서 진상 알리기 행사를 개최해 네덜란드 정계와 각계 시민들에게 파룬궁 진상에 관심을 가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이 기간 동유럽 사절단이 네덜란드 하원을 방문해 파룬궁수련자들의 청원 대열을 지나갔다. 많은 의원과 하원을 방문한 시민들은 이미 파룬궁수련자들이 배포한 전단지와 진상 정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전직 의원 해리 반 보멜(Harry van Bommel)은 하원에 와서 행사에 참가하고 파룬궁수련자들을 포옹하며 지지를 표명했다. 한 여성은 매주 토요일 로테르담 거리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의 진상 거점을 본다며 그녀도 이미 서명해 지지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세요!”

5월 30일, 31일과 6월 13일, 루마니아 파룬궁수련자들은 브라쇼브 구시가지에서 정보의 날 행사를 열고 대중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했다. 많은 루마니아 시민이 ‘진선인’ 이념을 알아본 후 그 가치관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에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청원서에 서명해 중공의 파룬따파 신앙 박해를 규탄했다. 두 아이의 어머니 미하엘라 가브리엘라 파너(Mihaela Gabriela Pană)는 ‘진선인’ 가치관에 흥미를 보였다. “만약 이러한 가치관을 일상생활에 진실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 존중, 책임감, 그리고 상호 이해를 촉진할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이 더 진실해지고, 동정심이 더 많아지며, 더 너그러워지고,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더 잘 처리하고, 더 인내심을 가지며, 타인을 존중과 이해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중국에서 박해받는 수련자들을 포함해 전 세계의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지지를 표명했다. “저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들이 하는 일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와 선한 마음으로 자신이 믿는 가치관을 계속 널리 알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행동, 진상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언제나 여러분이 믿는 가치관에 충실할 수 있는 힘, 신념, 끈기를 가지시길 기원합니다.”

6월 13일, 오스트리아 수련자들은 린츠에서 제24회 오스트리아 파룬따파 심득교류회를 개최했다. 18명의 파룬궁수련자가 각 항목과 개인 수련에서 겪은 각종 시련에 대한 수련 심득체험을 공유했다. 수련자들은 집착을 명확히 인식하고, 업력을 소멸하며, 심성을 제고하고 서로 협조해 중생을 구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산둥성 웨이하이시 파룬궁수련자 위징타오(于静涛), 덩후이민(丁慧敏), 샤오보(肖波), 왕더수이(王德水)가 2025년 10월 27일 중국공산당 정보(정치안전보위국: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에게 납치돼 감금됐다. 4명은 이후 룡청시 법원에 모함돼 4차례 재판을 받았다. 최근 이들은 부당하게 형을 선고받았다. 위징타오: 6년형 · 왕더수이: 3년 6개월형 · 샤오보: 3년형 · 덩후이민: 1년형.

저장성 진화시 파룬궁수련자 첸밍편(錢明芬) 부부[아내 천연화(陳艷花)], 첸언디(錢恩棣), 우창어(吳嫦娥) 4명은 2026년 4월 10일 진화시 우청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형을 선고받았다. 첸밍편은 5년형과 벌금 4만 위안을 부당하게 선고받았고, 그의 아내 천연화는 4년형과 벌금 3만 위안, 첸언디는 2년 3개월형과 벌금 1만5천 위안, 우창어는 1년 3개월형과 집행유예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벌금 8천 위안을 갈취당했다. 4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모함받은 구체적인 과정과 재판 세부 사항은 아직 조사 중이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왕청구 파룬궁수련자 리슈관(李秀寬)은 2025년 8월 21일 가택수색을 당하고 납치돼 왕청 구치소에 수감됐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그는 2026년 1월 20일 하얼빈시 다오리구 법원에서 부당하게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그는 박해로 병세가 나타나 아청구 내에 있는 하얼빈시 제6병원으로 이송됐다.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확인 중이다.

산시성 다통시의 64세 파룬궁수련자 천중리(陳忠麗)는 2025년 9월 5일 다통시 공안국 핑청 분국 구청 파출소 경찰에게 미행, 납치돼 다통시 제1구치소에 감금됐다. 2026년 6월 17일, 그녀는 다통시 원강구 법원으로부터 3년 6개월형의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

윈난성 쿤밍시의 85세 파룬궁수련자 리엔윈(黎燕雲)은 2026년 3월 말 무렵 연락이 끊겼다. 최근 그녀가 윈난성 제2여자감옥으로 옮겨져 9감구에 갇힌 사실이 알려졌다. 수감된 지 약 두 달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녀가 이번에 납치돼 갇힌 구체적인 경위는 여전히 조사 중이다. 최근 중국 각지에서는 부당한 판결을 받은 노년 파룬궁수련자를 상대로 이른바 ‘수감’ 박해를 지속하고 있다. 리엔윈 노인은 2022년 12월 쿤밍시 시산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1년형을 선고받고 벌금 2천 위안을 부과받았다.

내 근본 집착을 찾았다

글/ 헤이룽장성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올해 63세인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1996년 5월부터 운 좋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해,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 속에 비바람을 맞으며 지금까지 견지해 왔습니다.

법을 얻은 과정

법을 얻을 당시 저는 30대 초반이었고 몸도 건강했으며, 가정은 화목했고 직장 생활도 순탄했습니다. 그때 저는 기공에 관심이 많았는데 오빠가 류머티스 심장병에 걸려 병마로 몹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오빠가 젊은 나이에 병으로 시달리고, 잘생겼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마흔도 안 돼 등이 굽은 것을 보았습니다. 기공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좋은 기공을 찾아 오빠의 병을 고쳐주고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공도 좀 알아봤지만 연마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1996년 남편을 따라 타지로 전근을 갔습니다. 직장 동료의 추천을 받아 ‘전법륜(轉法輪)’을 추천해 주어 그때부터 다행히 법을 얻었습니다. 법공부 후 대법은 제 마음속 미망을 풀어주었고 인생의 의혹을 타파해 주었습니다. 수련하기 전 저는 다른 공간의 소리를 듣거나 때론 영상을 보기도 했고, 가끔은 원신(元神)이 몸을 빠져나가 다른 공간을 날아다니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겪었습니다.

‘전법륜’을 읽고 나니 인생의 수수께끼가 모두 풀렸고, 삶의 의미가 반본귀진(返本歸眞,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알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전법륜’이 사람에게 수련을 가르치는 보서(寶書)임을 알게 되자 대법 수련에 대한 확신이 섰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저와 함께 파룬따파를 수련하자고 말할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처 고향에 돌아가 그 말을 전하기도 전인 그해 6월, 오빠는 병마에 젊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41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며 어린아이를 남겨두어 부모님과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아버지도 병을 얻어 차례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스스로 파룬따파를 수련해 반본귀진의 길에 들어선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사부님께서 보호해 주시니 마음이 아주 든든했습니다. 당시 저는 자신이 병을 고치려 파룬따파에 들어온 것이 아니기에 오직 수련을 위해 대법에 들어왔다고 착각했고, 근본 집착이 없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명혜망에서 수많은 수련생이 근본 집착을 찾았다는 글을 보면서도 제 근본 집착이 무엇인지는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시련이 닥치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

2025년 5월 중순,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오른쪽 종아리가 부러졌습니다. 현지 병원에서 제때 지혈을 해주지 않아 병원을 옮기던 중 과다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에 저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갓 퇴직 수속을 마친 상태라 아직 퇴직 생활을 누려보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부지런하고 선량하며 진상을 아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20여 년 동안 저를 대신해 많은 압박을 견뎌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중공이 ‘제로화’나 ‘노크 작전’ 등으로 여러 차례 교란할 때마다 그의 직장을 찾아갔고, 직장 상사들은 그에게 압력을 가하며 대법을 비방하는 4서(四書, 네 가지 수련 포기 각서)에 서명하고 베껴 쓰라고 강요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여러 상사가 번갈아 가며 그를 불러 면담을 하는 바람에 남편은 고통스러워 밥도 넘기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번은 상사가 또 그를 불러 제가 집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또 왔습니까, 끝이 없네요. 어찌 쓸데없는 짓만 골라 하는 겁니까. 공법을 좀 연마한다고 이 정부가 없어집니까? 이 정부도 참 허약하네요. 외국 100여 개 국가에서는 모두 합법적으로 연마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영국, 미국, 일본, 한국 등 많은 나라는 물론이고 심지어 러시아조차 허용하는데 유독 중공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법 좀 연마한다고 이 정부가 무너진답니까? 민중의 세금을 받으면서 쓸데없는 헛짓거리나 하지 말고 민중을 위해 복지나 더 늘려 서민들이 좀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돈이 없어 병원도 못 가는 서민들이 공을 연마해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하게 하려는데, 정부가 이렇게 겁을 집어먹다니요.” 그의 말에 상사는 말문이 막혔고, 집으로 찾아와 교란하려던 시도는 남편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그는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공법을 좀 연마하는 게 법을 어기거나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쩌민이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 짓거리입니까! 장쩌민이 나라를 팔아먹은 건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서민이 공법을 연마해 병 없애고 건강해지겠다는데 끝도 없

이 괴롭히고, 제작년에 무슨 ‘제로화’인가를 한다며 대대적으로 사람을 동원해 제게 서명을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서명만 하면 앞으로 다신 안 찾겠다더니, 서명 안 하면 정상 출근도 못 하게 만들고 온 가족을 반년 동안 편할 날이 없게 들볶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왜 또 와서 교란하는 겁니까?! 이렇게 큰 정부가 한 입으로 두말하며 이랬다저랬다 하니, 저는 예전에 했던 서명이 다 무효라고 이미 성명했습니다. 하늘이 증명할 겁니다.”

남편은 진상을 안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중공의 ‘민감한 날’이나 위에서 무슨 회의만 열리면, 공안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나 지역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그를 교란했고, 직장 상사를 찾아가 압력을 넣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집에 돌아와 화풀이했고, 화목했던 가정이 교란 때문에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교란을 받으면 당당하게 거부하며 정의감에 넘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많은 상사도 진상을 알게 되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대법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졌기에 대법의 보호를 받았고, 예전에 앓던 위장병, 허리 디스크 통증, 정맥혈전 등 질병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 나았습니다. 세 번의 오토바이 사고와 한 번의 승합차 사고도 모두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는 무척 건강해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즐기지 않으며 마작도 하지 않았고 남 돕기를 좋아했습니다. 온갖 악이 난무하는 이 사회에서 보기 드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일도 자주 도왔고 무슨 일이든 대충 넘기지 않고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의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가 곁에 있어 삶이 평온하고 화목했기에 그가 저와 함께 파룬따파를 수련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공의 교란을 약간 두려워해 “아직 때가 아니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중공 통치하에 있는 중국 땅에서 정법(正法)을 신앙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그는 대법을 인정했고 제가 읽는 ‘전법륜’을 자주 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퇴직해 시간이 생기면 그때 다시 함께 수련하자고 권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자마자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두 달 넘게 저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외롭고 상실감이 컸으며,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것만 같았고 모든 게 그저 꿈 같았습니다. 때론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습니다. 잠이 들어 꿈에서라도 그를 만나고 싶었고, 그가 제게 뭔가 할 말이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을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고통 속에서 저는 자신이 수련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법공부도 할 수 없었으며 연공도 멈췄습니다. 발정념을 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완전히 속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근본 집착을 찾다

저는 수련인에게 우연한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하기 전 제 상태를 돌이켜보았습니다. 법난(法難)으로 인해 저는 발정념 횡수를 늘렸고 마음을 가라앉혀 법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남편이 사

망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부님과 대법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을까요? 저는 자신에게 사부님을 믿고 대법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믿어! 하지만 남편이 사고를 당했을 때, 왜 사부님께 그를 구해 달라고 청하지 않았을까? 왜 전화를 걸어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묵념하라고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때 저는 속인의 사고방식으로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의사의 냉담함이 그의 목숨을 앗아갈 줄은 몰랐으니, 저의 신사신법(信師信法)에 누락이 생겼던 것입니다.

저 자신을 계속 깊이 파고들어 보니 이익심이 매우 컸습니다. 돈을 더 벌어 좋은 차를 사고 더 나은 생활을 누리고 싶었고, 남편과 함께 차를 몰고 고향으로 여행도 가고 싶었으며, 과시심, 허영심, 명예욕이 있었습니다. 중공의 경제적 박해로 인해 제 퇴직 연금은 일반 임금의 3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적어서 친척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직해 월급을 하나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 환희심이 올라왔습니다. 이익심, 비교하는 마음, 생활의 질을 따지고 예쁜 옷을 사 입기 좋아하는 마음, 색욕심 등 속인 속의 행복과 안일한 생활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껏 수련해 오면서도 저는 여전히 속인의 것을 구하고 있었고, 무의식중에 ‘한 사람이 연공하면 온 가족이 이익을 얻는다’고 여기며 남편은 진상을 아는 사람이니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대법을 보호막 삼아 업력운보(業力輪報)의 인과관계도 잊고, 사람의 수명도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사실도 잊었으며, 저와 그의 인연 역시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여전히 그 정(情)을 짝 쥐고

놓지 못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것은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으며, 사람의 정은 더더욱 믿을 수 없는 법입니다.

뜻밖에 닥친 시련이 그의 목숨을 앗아갔고, 저는 깊은 상실감과 슬픔에 빠졌지만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수련을 새롭게 돌아보았습니다. 매일 법공부와 발정념을 하고 세 가지 일도 하고 있었지만, 과연 진정으로 수련했는가? 착실히 수련했는가? 내 근본 집착은 무엇인가? 혹시 대법을 이용해 속인으로서 안락한 삶을 누리려 한 건 아닌가? 사부님의 보호를 구하려 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에 미치자 깊숙이 숨어있던 근본 집착이 날 날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을 배우면 온 가족이 혜택을 얻고 사부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 심성은 대법을 보호막으로 삼아 저와 가족을 지키려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를 깨달았을 때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토록 이기적이고 더러운 집착심이 이렇게 오랫동안 잠복해 있었다니요. 어째서 전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저는 가짜 수련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까?

집착 하나하나가 우리 수련을 가로막는 커다란 산입니다. 근본 집착을 찾았다면 응당 제거해야 합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던 저의 달콤한 꿈을 산산조각 내며 제 근본 집착을 폭로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니, 근본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 구세력에게 단단히 조종당하며 그들이 안배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는 법을 실증하고 중생을 구하는 제 막중한 임무를 교란했을 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난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 근본 집착을 멀어버리겠습니다. 반드시 내려놓고 닦아내야 합니다. 저는 수련하러 온 것이지, 속인의 달콤한 삶을 누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발정념 횡수를 늘려 제 공간장 안의 명(名), 이(利), 색(色), 정(情)과 관련된 모든 부패한 물질을 제거하고, 제 근본 집착을 뿌리 뽑아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길을 걷고 있습니다.

법공부를 견지해 슬픔에서 벗어나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저는 수련인이므로 언제까지나 그를 붙잡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상태를 벗어나 슬픔을 떨치고 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기운을 내어 계속 수련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직 법공부만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7월 중순 어느 날, 저는 ‘전법륜’을 들었습니다. ‘전법륜’을 그동안 몇 번이나 읽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고 단락마다 외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책을 들고 읽으려니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자꾸 글자를 빼먹거나 더 읽게 되었고,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제게서 아득히 멀어진 듯했고, 마치 눈앞에 두꺼운 흰 천이 가로막힌 것처럼 책 속 글자가 또렷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꾸 잘못 읽게 되니 더는 공부하고 싶지 않았고, 즐리고 피곤하기만 해 사상업의 교란이 무척 심했습니다. 저는 버티고 또 버티며 힘겹게 견뎌냈습니다. 졸리면 벌떡 일어나서 읽었습니다. 예전엔 한 시간이면 한 강을 다 읽었고 효과도 무척 좋아 때론 글자체의 변화나 오색 빛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한 강을 읽는 데 꼬박 4시간 가까이 걸렸고, 머릿속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듯했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쉬려는데, 천목(天目)으로 학생처럼 보이는 많은 이들이 조용히 앉아 제가 법을 읽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는 나태해져선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른 공간의 생명들이 제 법 읽는 소리를 듣고 있

였으니, 이런 광경을 보여주신 것은 분명 사부님께서 제게 법공부를 잘하라고 격려해 주신 거라 믿었습니다. 사부님의 격려와 일깨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9일 내내 꼭 참고 ‘전법륜’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읽었습니다. 그 후로는 법공부할 때 더는 졸리지 않았고 머리도 한결 맑아졌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난관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후 마음을 가라앉혀 법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법공부의 신묘함을 깨달았습니다. 법공부는 저를 슬픔에서 건져주었으며 의사를 향한 원망심도 내려놓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딸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무책임한 병원을 고소하려 하니 변호사에게 보낼 아빠의 피투성이 사진을 달라고 했습니다. 딸은 사진 속 피투성이가 된 아빠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더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엄마!” 하고 소리치며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 사진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 도저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 마음이 아주 평온했습니다. 법공부를 통해 사부님께서 제 안의 슬픈 물질과 남편에 대한 정을 많이 제거해 주시어 내면의 평온과 안정을 되찾아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대법의 법력은 정말 무한합니다. 대법은 저를 상실감과 외로움, 슬픔의 늪에서 구해주셨고, 저 역시 근본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서 제가 이 난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법공부, 법 암기, 발정념을 강화했습니다.

자신의 근본 집착을 찾고 나니 더는 고통스럽지 않았고 남편에 대한 정마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남편이 꿈에 나타나 “당신 말 들을게”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대법 수련을 하겠다는 뜻이

겠지요. 저세상에 가고 나서야 비로소 대법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얻었을 때 수련할 기회를 잡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그가 하루빨리 사람 몸으로 다시 태어나 파룬따파를 수련하길 바랍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말씀하신 ‘사람은 제각기 운명이 있다’라는 법리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생로병사는 이미 정해진 배치이고 업력의 윤회 속에서 모든 것은 필연이니, 원망심을 거두고 병원을 고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딸을 타일렀습니다. “이 십악독세(十惡毒世)의 사회에선 관리들끼리 서로 감싸주고 사법도 불공평한데, 우리 같은 서민이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어디 있겠니? 사람의 마음이 타락한 탓이다.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으니, 선악에 응보가 따르는 것은 천리(天理)라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단다. 설령 인간의 법망을 빠져나간다 해도 하늘의 징벌은 결코 피할 수 없어. 우린 고소하지 말자.”

저는 매일 법공부를 할 때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마음에 와닿게 배우려 노력합니다. 오직 법공부를 강화해 저 자신을 법 속에 오롯이 녹여내야만 사람의 관념과 집착을 타파할 수 있고, 시시각각 안으로 찾아 자신을 잘 수련하며 세 가지 일을 훌륭히 해내어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집착심을 없애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2020년 7월, 나는 진상을 알리던 중 진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신고당해 불법적으로 1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지 사회보장국은 내 연금 지급을 불법적으로 중단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 줄곧 관련 부서들을 찾아가 진상을 알리며 연금을 돌려받으려 하고 있다.

1. ‘결번’이 드러낸 의심

어느 날, A 수련생이 진상을 알릴 때 쓰라며 현지 610(당시 정법위 책임자로 알았음)의 전화번호를 주었다. 연금을 돌려받으려면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 610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하지만 그 번호는 A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라 내가 직접 전화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였다. 그래서 A와 상의했더니 “저녁에 집에 가서 전화해 볼게요”라고 말했다.

다음 날, 우리집에 온 A는 “전화를 걸어봤는데 ‘결번’이더라고요. 그 사람 집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사회보장국에 가야 한다며 서둘러 떠났다.

별다른 생각 없이 어차피 결번이라면 내가 한 번 걸어봐도 괜찮겠다 싶었다. 무심코 전화기를 들어 전화를 걸었더니 웬걸, 연결이 되었다! 깜짝 놀랐다! 610 책임자 본인이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이다. 나는 할 말을 마친 뒤 전화를 끊었는데, 물론 진상도 약간 알렸다.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요동쳤고, A가 일부러 결번이라고 거

짓말을 했다는 의심이 들었다. 원망하는 마음도 치밀어 올랐다. B 수련생 집으로 찾아가 A에 대해 실컷 늘어놓으며 수련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졌다. 말하면 할수록 화가 났다. B가 “설마 그럴 리가요?”라고 하길래 나는 “이건 사실이에요!”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B는 “여기엔 다 우리가 수련해야 할 부분들이 들어 있어요”라고 말했다.

법공부를 시작하며 안으로 찾아보니 수많은 마음이 발견되었지만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다. 의심이 워낙 컸던 터라 그 마음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했고, 그로 인해 사태는 계속 꼬아갔다. 소그룹 법공부를 하는 날, 우리집에 법공부를 하러 온 A를 애써 참으며 바라보는데 아무리 봐도 곱게 보이지 않았다.

그때, 법을 읽던 A가 글자 하나를 빼먹었다. 나는 “글자 빠뜨렸어요!”라고 지적했다. A가 “무슨 글자요?”라고 묻자 나는 “진(眞)자예요. 우리는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데 왜 참된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어디 다시 한번 ‘결번’이라고 말해 보시죠”라고 쏘아붙였다. A는 의아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뻘뻘 보더니 “‘결번’이라니요?……”라고 했다. 며칠을 꺾꺾 눌러 참았던 나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고, 수련생의 해명은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나중에 사부님의 강력한 에너지 가지(加持) 아래, 안으로 찾으며 내면의 사람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다. 의심, 원망심, 분노, 불평, 체면, 자아에 집착하는 마음,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 질투심, 쟁투심, 공산당 당문화 등이 있었다. 법공부를 많이 하면서 수련생과의 간격을 없앴고, 사상이 승화되어 마음 깊은 곳에서 따듯한 미소가 번져 나왔다.

교류를 통해 알고 보니 A가 전화번호의 3과 8의 위치를 거꾸로 누르는 바람에 전화를 걸었을 때 ‘결번’이 나왔던 것이었다. 이런 일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나는 오직 법을 많이 배우고 잘 배워야만 자신을 수련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음을 깨달았고, 갈등도 더는 갈등이 아닌 제고의 계단이 됨을 깨달았다! 수련을 하기에 그런 상황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2.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 내려놓기

중학교 시절 반에서 줄곧 정치 학습 위원을 맡았던 터라 내게는 당문화가 매우 짙게 배어 있었다. 진작에 수련해 없애야 했건만 내내 말끔히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B에게 부탁해 진상 편지 초안을 작성하게 한 뒤, 소그룹 수련생들과 함께 읽어보고 수정했다. 그런데 최종 원고를 확정해 인쇄하려는 찰나, 다른 수련생이 쓴 편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용을 좀 더 보충하고 싶었지만 B는 더 이상 수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내가 계속 고쳐야 하는 이유를 강조해도 B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정말이지 소통이 안 된다 싶어 몹시 낙담했다. 그 편지는 내가 공안, 검찰, 법원 등 각 기관을 찾아가 직접 진상을 알리며 연금을 되찾는 데 쓸 요량이었기에 최대한 내용을 갖춰 완벽하게 쓰고 싶었다. 짧은 한 단락, 아니 몇 문장이라도 더 넣자고 했지만 B는 끝내 반대하며 지금도 충분히 잘 썼으니 덧붙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집에 돌아오자 속인의 부정적인 것들이 솟구쳐 올랐다. ‘추가 안 할 거면 관둬. 나도 알리러 안 가. 누구한테 알리든 다 똑같지, 굳이 간부들한테 알릴 필요 있나…….’ 내가 누구인지, 정법

의 길을 걷는 대법도(大法徒)이자 사명을 띤 대법제자라는 사실조차 깡그리 잊고 말았다. 머릿속이 멍해지더니 이내 온몸에 비정상적인 병업 증상이 나타났다. 머리와 치아,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설치며 꼬박 일주일 동안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이게 어디 수련인의 상태란 말인가! 수련인이 법을 벗어나면 곧 속인이다. 그때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어서 법을 배우고 안으로 찾자. 구세력에게 틈을 내어주어선 안 돼.’ 나는 즉시 법공부를 하며 마음을 닦고 안으로 찾기 시작했다. 그러자 너무나 많은 사람 마음이 드러났다. 자아를 내세우는 마음, 포용하지 못하는 마음,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 원망하며 남과 비교하는 마음,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 질투심 등이었다. B는 내가 제고하도록 돕고 있었던 것이다! 내 집착심을 없애 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십 년 넘게 수련했으면서 어찌면 이리도 사람 마음이 많을 수 있을까? 평소 마음을 닦지 않아 법의 요구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착실히 수련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 사부님께 면목이 없고 수련생에게도 미안했다.

심성이 제고되자 사부님께서 내 몸의 부패 물질을 제거해 주셨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졌으며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 지금의 1분 1초가 그토록 소중한데, 나는 적잖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 당시 B의 말이 왜 귓등으로도 안 들렸을까? 사실 사부님께서 수련생의 입을 빌려 나를 일깨워 주시며, 나 자신을 찾아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신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법공부를 통해 비로소 깨우쳤다. 법으로 나를 일깨워 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B를 직접 만나 “미안해요, 내 사람 마음

이 너무 무거웠어요. 속인처럼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이 너무 컸나 봐요. 이 집착심은 반드시 수련해 없앨게요. 어떤 마음도 천국에는 가져갈 수 없으니깐요”라고 사과했다. B는 “나도 안으로 찾을게요. 다 우리가 수련해야 할 것들이에요”(이것은 B 수련생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라고 화답했다.

지금 이 자리를 빌려 나를 위해 애써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리고, 도움을 준 수련생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나는 대법제가 해야 할 세 가지 일을 잘해 나갈 것이다. 나중에 다시 보니 그 진상 편지가 어찌면 그렇게 잘 쓰였는지, 확실히 훌륭했고 내 마음에도 쏙 들었다. 게다가 진상을 알려 연금을 되찾는 데 실제로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수련은 엄숙하다. 속인의 어떤 일도 모두 가상(假相)이니, 수련인은 가상에 눈이 멀어 구세력의 속임수에 넘어가선 안 된다. 구세력의 배치를 부정하고 정념을 많이 받으며 법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법에 서서 수련해야만 앞으로의 수련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

천목과 숙명통 공능이 있는 수련생에 대한 일깨움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숙명통(宿命通) 공능이 어느 정도 있는 대법제자로 때때로 천목(天眼)으로도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이런 능력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밤에 꿈을 꾸다가 수련생과 관련된 일들을 보게 됐는데 수련생에게 알려주는 것이 적절할지 생각하던 중에 갑자기 어떤 법리를 깨달았고, 또 얼마 전에 수련생의 상태가 걱정돼 조급한 마음에 제가 아는 결과를 말해버려서 제 몸에 적지 않은 교란이 발생한 이후 겪었던 혼란스러운 문제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주변 수련생들이 수련 상태에 문제가 생겨 다양한 교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을 알게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부당한 감금 같은 그런 박해가 아닙니다. 박해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원인으로 생기는 이른바 ‘병업 박해’가 있고 경제적 박해가 있으며 정(情) 속에 빠져 주의식(主意識)이 강해지지 못하는 박해가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과 게임으로 대법제자가 정진하지 못하게 하는 박해가 있고, 대법제자가 착실히 수련하지 않고 법에 있지 않아 사악이 빈틈을 타 부당하게 감금하는 박해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오랫동안 법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인식대로 법을 실증하는 일을 하다가 수련하는 한 가정에 문제가 생긴 사례입니다.

현지에 한 가족이 있는데 거의 모두가 수련인이었습니다. 하지

만 많은 일들을 법의 기준으로 가늠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정으로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해 왔기에 오랫동안 착실히 수련하지 않는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주변 수련생들이 모두 문제를 보고 말해줘도 듣지 않아서 수년째 가족 간 갈등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가다가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을 알아서 끊임없이 일깨우고 교류해 왔지만, 그 수련생은 두려운 마음이 크고 마음을 수련해 집착을 없애는 고통을 감당하기 싫어서 이런 문제들을 직접 대면하려 하지 않고 줄곧 회피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는 이 가족에게 곧 문제가 생길 것이며 게다가 적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미리 알았지만, 구체적인 문제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잘 몰랐습니다. 올해 초 제가 어떤 일의 발전 상황을 알게 된 이후 끊임없이 수련생과 교류했지만 여전히 사악한 요소에 빈틈을 내줘, 그것들이 이른바 병업과 정마(情魔)의 형태로 수련생을 박해했습니다.

저는 한 수련생이 아직 빈틈을 내주지 않았지만 이대로 계속 가면 곧 그녀도 빈틈을 내주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의식했습니다. 수련생이 박해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는데, 대법제자는 하나가 일당백이 되어 사람을 구하는 길을 걸으며 사명을 완수해 중생을 구하고 자신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조급한 나머지 그녀가 직면하게 될 병업 박해를 말해버렸습니다.

이후 이 수련생과 세 시간에 걸쳐 전면적으로 교류했습니다. 이 수련생은 그녀 가족 전체와 그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한 이후, 법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 수

련생이 법에 입각해 법을 인식하도록 도왔습니다. 감성적으로 법을 인식하는 것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법을 인식하는 것으로 승화하는 동시에, 포용력을 넓혀 다른 수련생을 포용하고 도움이 필요한 수련생을 도왔습니다. 자신이 접촉할 수 있는 수련생이라면 모두 전심전력으로 도우며 보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고는 진정으로 착실하게 수련하는 과정에서의 승화이며, 바로잡는 데도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로 이야기할 것은 제 문제입니다. 제가 이 수련생에게 그녀가 직면하게 될 결과를 알려줬을 때 사실 저는 그 층의 안배를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미리 말해버린 것은 곧 그 층의 미혹을 깨뜨린 것으로, 그 이유는 수련생이 손실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년간 너무 많은 대법제자가 세상을 떠나 대법제자가 사람을 구하는 힘이 줄어드는 것을 보았고, 특히 눈앞의 수련생, 어떤 때는 비교적 젊고 겉으로 보기에 건강한 수련생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예전에는 매우 정진했지만 지금은 이른바 병업으로 집에 누워 소극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수련생을 보면 마음이 더없이 아픕니다. 그 아픔은 형용할 수 없으며 여기까지 쓰다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사부님께서 《전법륜(轉法輪)》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것은 바로 당신이 속인의 이익 중에서 명명백백하게 손해를 볼 때, 절실한 이익 앞에서 당신이 마음을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혈뜬고 싸우는 중에서 당신이 마음을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친척이나 친한 친구가 고통을 겪을 때 당신이 마음을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당신이 어떻게 가늠하는지 하는 것인데, 한 연공인(煉功人)으로서는 바로 이처럼 어

럽다!”

수련생들이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확실히 수련생 간의 정이 생기지만, 이를 구실로 안배를 파괴하고 서로 다른 층차의 기준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닫는지, 깨닫지 못하는지 하는 문제며, 또한 제도할 수 있는지, 제도할 수 없는지 하는 문제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그에게 설법해 줄 수 없으며, 깨달을 수 있으면 깨닫고, 깨닫는 문제이므로 깨닫지 못하면 방법이 없다.” “어떠한 心性(썩썩)이든 모두 있으며, 그가 얼마만큼 높이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만큼 높이 깨달으며, 누가 깨달으면 누가 얻는다.”

수련에는 반드시 기초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법에서 착실히 수련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법리를 얻을 수 없고 법리의 점오(點悟)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법을 실증하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돌아보면 모두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정으로 한 것입니다. 일만 하고 착실히 수련하지 않는 것은 사부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사람을 구하는 힘도 부족해 때때로 속인이 그저 대법제자를 대충 얼버무려 응대할 뿐, 진심으로 중국공산당(중공) 사령(邪靈)을 똑똑히 인식해 삼퇴(중공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하고 평안을 보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대법제자가 수련에서 대충대충 하는 것과 대응됩니다.

예로부터 천기는 누설해서는 안 되며 천기를 누설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신의 안배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런 소원을 내보내기만 하면, 그럼 좋다, 그 병은 단번에 그의 몸으로 전화해 온다. 정말로 이런 작용이 일어나,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병에 걸린다. 다른 사람은 나왔지만 남의 병을 봐주고 자신은 집으로 돌아가서 괴로워한다.”

지금 저는 정말로 수련생의 정 때문에 서로 다른 층차의 대법제자에 대한 기준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이 정법시기 대법제자에 대한 기준은 더 엄격해질 뿐인데, 대법수련은 엄숙한 것이라 수련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조급하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해서도 안 되며 이는 절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이 수련생이 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직면하게 될 결과를 말해버린 것으로 인해 징벌을 받았고, 3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조정할 수 있었으니 정말 큰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으려 노력했기에 동시에 법리 인식에서도 승화를 얻었습니다.

수련생들이 법연(法緣)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며, 또한 천목이 열렸거나 속명통 공능이 있는 수련생들이 말하는 정도를 잘 파악해 자신이 속한 층차에서 아는 결과를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수련생은 깨달은 것이 아니라 겉을 먹어 잠시 표면적으로 주의한 것일 뿐, 이 일을 통해 진정으로 자신을 착실히 수련하고 심성을 높인 후 법리를 깨달아 승화한 것이 아닙니다. 수련생들도 천목이 열렸거나 속명통 공능이 있는 수련생에게 수시로 이것저것 말해달라고 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은 이 부분의 능력이 있는 수련생을 해치는 일입니다.

수련생들은 함께 법공부한 이후 더 많이 안으로 찾기를 교류해야 하고, 심성을 어떻게 높인 후 더 잘 법을 실증하며 더 높은 층차의 법리 기준과 요구에 부합할지를 교류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부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 여기까지 썼습니다. 층차가 제한적이니 수련생 여러분께서 바르게 깨달은 바른 법리로 일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명혜망 설립 27주년: 어둠 속의 등대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1999년 ‘4·25’ 중난하이(中南海) 평화 청원 이후, 중국공산당(중공)의 ‘7·20’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전면 공개 박해 이전, 나는 연공장의 한 여성 수련자로부터 해외에 대법제자가 운영하는 명혜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곳에서 국내외 수련자들의 최신 소식과 파룬따파의 형세를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1999년 ‘4·25’ 이후, 형세가 좀 기이해졌다. 당시 나는 아직 어렸고 문화대혁명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에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이토록 빨리 일으킬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연공장의 한 나이 든 수련자가 공산당은 이 일(‘4·25’ 평화 청원)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나는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몰랐기에 당시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명혜망에 접속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집에는 인터넷이 되는 데스크톱 컴퓨터가 있었다. 당시 국내에 중공이 아직 대규모 방화벽을 구축하지 않았을 때라 그녀는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기만 하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당시 매우 부러웠다. 그때 컴퓨터는 고급 소비재에 속해 개인이 PC를 가진 경우가 아주 드물었다. 나는 ‘내게 컴퓨터가 한 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명혜망에 접속해 도대체 어떤 소식이 있는지, 수련자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들이 무엇을 썼는지 볼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이후 그녀가 그 지역을 떠나는 바람에 미처 그녀의 집에서 명혜망에 접속해보지도 못한 채 그 선이 끊어지고 말았다.

‘7·20’ 박해가 전면적으로 폭발했을 때, 중국 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는 사부님과 파룬따파를 비방하는 내용이 하늘을 뒤덮듯 쏟아졌다. 연공장의 보도원과 구역 책임자들이 모두 납치됐고, 일부는 풀려났지만 감히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해 기존 사부님의 경문 배포 통로가 마비됐다. 직장, 파출소, 주민위원회에서 번갈아 가며 연공장 수련자들을 찾아와 청원하지 말고 연락하지 말며 단체 법공부와 연공을 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해, 수련자들 사이에 정보와 경문을 전달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때는 오성이 제한적이어서 사부님의 새 경문이 발표되기만을 바랐다. 결국 현지에서 가짜 경문이 나타났다. 가짜 경문 파동 이후 우리 지역 수련자들은 더욱 명혜망에 접속하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모두 명혜망에는 가장 진실한 정보, 가장 정확한 소식, 정법 형세가 있을 것이고, 그곳에는 국내 수련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해외 수련자들은 분명 명혜

망을 통해 국내 수련자들과 연락하고 교류할 것이었다. 당시 국내 환경이 매우 사악해 수련자들이 진실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마치 길고 긴 어두운 밤에 비틀거리며 걷는 것 같았기에, 명혜망 접속은 우리 내면의 가장 진실한 갈망이자 염원이었다.

기억 속 2000년 봄, 나는 한 PC방에 들어갔다. 당시 PC방은 막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신분증 없이 들어갈 수 있었고 한 시간에 1~2위안만 내면 됐다. 나는 순조롭게 컴퓨터 앞에 앉아 웹페이지를 열고 프록시 서버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사전에 프록시를 통해 인터넷 차단을 뚫는 방법을 찾아두었기에 순서대로 조금씩 찾아 마침내 쓸만한 프록시 주소를 찾아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명혜망을 열어 사부님의 사진을 보게 됐다! 당시 나는 너무 기뻐했다. 마침내 명혜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내면의 흥분을 억누르고 표정을 관리하며 주변에서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이상이 있는지 최대한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나는 지금까지도 당시의 흥분을 기억하고 사부님께서 발표하신 새 경문을 보았던 것을 기억한다.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명혜망에 접속한 것이었는데, 중공이 파룬궁을 가장 사악하게 박해하던 그 시기에 그것은 스틸 넘치면서도 행복한 경험이었다. 아득하고 끝없는 어둠 속에서 길의 끝이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한 줄기 강렬한 빛이 스며드는 것을 본 것 같았다. 수련자들이 차단되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흑백이 뒤바뀐 시대에, 친척과 친구들이 거짓말을 믿고 당신을 차갑게 대할 때, 마음속이 천만번 고독할 때, 명혜망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이자 어둠 속의 등대와 같았으며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집이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에게도 컴퓨터가 생겼고, 주변 수련

자들도 속속 컴퓨터를 갖게 돼 우리 지역 수련자들은 다시는 명혜망과 연락이 끊어지지 않았다. 매일 우리는 명혜망에서 수련자들의 교류문장을 보았고, 또 매일 수련자들의 교류를 볼 수 있었기에 당시 중공의 박해가 매우 심해 수련자를 한 번 만나기조차 어려웠음에도 우리는 고독을 느끼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수련자가 모두 확고하게 수련하고 있고 우리 배후에 강력한 힘이 있다고 느꼈으며, 우리를 괴롭히려 온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수련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었다.

사악에게 박해당해 컴퓨터를 압수당하고 감옥에 갇혀 박해받는 기간에도, 머릿속에는 줄곧 집으로 돌아간 후 가장 먼저 어떻게 하루빨리 컴퓨터를 한 대 사서 누구누구를 찾아가 인터넷 우회 프로그램을 복사해 가장 빠른 속도로 방화벽을 뚫고 명혜망에 접속할 것인지 생각했다. 기본적으로 모두 소원대로 돼 박해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후 일주일 내에 컴퓨터 구입, 시스템 설치, 암호화, 방화벽 돌파 등 일련의 동작을 기본적으로 완료하고 다시 파룬따파 명혜망과 연결될 수 있었다.

영원히 순수하고 또 익숙한 화면, 사부님의 자비롭고 위엄 있는 사진, 수련자의 소박하고 진실한 교류…….

명혜망,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무이한 마음의 등대이자 수많은 대법제자가 지키고 있는 신앙의 진지는 영원히 갱신되는 우주 속에서 영원히 빛을 발할 것이다.

(원문은 3년 전 6월 28일에 발표됐다: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3/6/28/462453.html>)

자신을 실증하는 마음과 과시심에 대한 작은 인식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나는 2003년에 법을 얻은 대법제자다. 내가 접촉한 수련생 중 내가 법을 가장 늦게 얻은 편이었다. 평소 법공부를 비교적 중시했기에 함께 교류할 때 법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 수련생들은 내가 나중에 왔지만 더 앞서간다고 하며 나와 교류하기를 즐겼다. 그때 나는 이런 말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 여겼을 뿐 칭찬을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집착은 아닌지 생각해보지 않았고 실제로 수련할 줄도 몰랐다.

이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다는 이유로 중국공산당(중공)에 불법적으로 2년간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다. 사부님의 보호와 수련생들의 정념 가지(加持) 아래 법에 대한 확고한 바른 믿음으로 사악과 타협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뒤 다시 수련생들 눈에 ‘영웅’이 됐고 다들 내가 잘했다고 칭찬했다. 나 역시 수련한 지 1년 반 만에 이런 잔혹한 박해에 직면하고도 확고하게 노동수용소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꽤 훌륭하다고 느꼈다. 그때 안으로 찾으며 일 욕심이 너무 강해 박해를 불러왔다고 여겼을 뿐 자신을 실증하려는 마음과 과시심에 대해서는 줄곧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나는 작년에 아버지(수련생)가 병업 고비를 넘기시도록 곁에서 도왔다. 수련생들과 접촉하면서 이 일을 모두와 교류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고비를 넘길 때의 정념정행이 수련생들을 격려하고 도

움이 될 거라 여겼다. 출발점은 좋았지만 매번 과시심이 강해 계속 말하기만 했고 정념을 내보낼 때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았다. 머릿속에 그런 정념정행의 장면들이 떠오르며 계속해서 상상하고 있었다. 나는 오랜 세월 줄곧 과시심과 자신을 실증하려는 마음을 키워왔으며 내 말이 수련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구실로 그것들을 자양해 왔음을 깨달았다. 즉시 그것들을 부정하고 제거했다. 그것들이 정말 강렬해서 끊임없이 솟구쳐 올랐고 나는 계속해서 부정했다. 이때 한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정말 잘했어, 정념도 아주 강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 고비를 잘 넘기지 못했을 거야!’ 나는 이런 생각이 별문제 없다고 줄곧 여겨왔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집착심은 여전히 강렬했고 수시로 나타났기에 내가 그것들의 뿌리를 붙잡지 못한 채 겉핥기식으로 수련했음을 알았다.

최근에야 비로소 그것들의 참모습을 똑똑히 보게 됐다. 이는 안으로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부모님은 연세가 많아 안으로 찾는 데 서투르셨다. 작년에 아버지가 병업 고비를 넘기시도록 도우며 착실한 수련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대량의 법공부와 수련생들의 교류 문장을 들으며 안으로 찾는 면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생겼고 마침내 이치가 트였다. 부모님을 이끌고 함께 정진하며 착실히 수련해야 함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협조인으로서 지난 몇 년간 바쁘게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오랫동안 수련했음에도 마성이 여전히 커서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내셨다. 성격이 외향적이라 어떤 집착이든 겉으로 다 드러내셨다. 나는 눈에 띄는 대로 지적해 드렸다. 최근 들어 어머니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강압적인 태도와 자신을 실증하려는 마음, 그리고 과시심이었다. 여러 번 교류를 시도했지만 어

머니가 인정하지 않으셔서 무척 괴로웠다.

법공부와 교류 문장을 듣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줄곧 남만 수련시키려 했을 뿐 한 번도 거울을 보듯 내가 상대와 똑같지는 않은지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다. 어쩐지 그렇게 뚜렷한 집착을 어머니가 보지 못하신다 했더니 알고 보니 사부님께서 우리가 함께 제고하게 하신 것이었다! 나는 줄곧 내 말이 옳다고 강조하며 상대가 받아들이기를 바랐고 매번 설 새 없이 말하고 또 말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과시하고 내 인식이 옳음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많은 집착이 섞여서 나온 말이 어찌 순수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그럴 듯하게 상대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다.

또한 스스로 정념이 강하고 잘한다고 여겼던 생각은 애초에 내 생각이 아니었으며 과시심과 자신을 실증하려는 마음 이면에 있는 가짜 자아가 한 생각이었다. 순간 눈앞이 확 트였다! 사부님께 너무나 죄송했다.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하시는데 사부님의 가지가 없었다면 내게 어디서 정념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사부님께서 나를 위해 무수한 심혈을 기울이셨거늘 나는 오히려 집착심에 미혹돼 공로를 탐냈으니 참으로 부끄럽다. 사부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자가 어리석어 뒤늦게 잘못을 깨우쳤습니다!

이후 왜 어떤 사람은 법을 배우지 않고 사람을 배우며 수련생을 숭배하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식하게 됐다. 이 역시 자신을 실증하려는 마음이 수련생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마음은 남을 앞에 두고 중시하게 하며 타인이든 자신이든 상관없이 그 사고방식은 오로지 남이 얼마나 높이 깨닫고 잘했는지, 남이 얼마나 대단하고 정념이 강한지에만 초점을 맞춰 사부님

의 가치와 안배, 대법의 위덕을 소홀히 하게 만든다. 주객이 전도되고 미혹성이 강하며 매우 교활해서 당신에게 그럴듯한 이유를 잔뜩 찾아주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믿게 만든다. 사람 마음이 너무 강할 때는 그것이 정말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게 되니 얼마나 무서운 사람 마음인가! 모두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결국 자신을 실증하려는 마음과 과시심이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기심이며 그 자아와 그 사사로움은 구우주의 것이니 우리는 원치 않는다. 우리는 신우주의 이타적인 생명이 돼야 하며 정진하고 바르게 깨달아 중생을 이끌고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개인의 얇은 인식이며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스(舍十)

12명 흑리의 서로 다른 운명에서부터 말하다

글/ 소가(蕭歌)

[명혜망] ‘흑리(酷吏)’라는 말은 가장 먼저 ‘사기·흑리열전(史記·酷吏列傳)’에서 보이며, 훗날 사서의 고정 소재가 됐다. ‘흑리’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가혹한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관리다. 그렇다면 ‘사기·흑리열전’에 기록된 12명의 ‘흑리’, 그들의 운명은 과연 어떠했을까?

‘흑리’는 일반적으로 행사가 잔인하고 여지를 남기지 않아 대부분 끝이 좋지 않다는 인상을 주지만, ‘흑리열전’ 중에는 오히려 제명에 죽은 사람이 몇 명 있다. 아래에 조우(趙禹)를 예로 든다.

조우, 봉당을 맺지 않고 법에 따라 바름을 지키다

‘사기·흑리열전’과 ‘한서(漢書)’ 기록에 따르면, 전국시대 및 서한(西漢) 초기, 고관대작과 조정 중신들 사이에서 자기 세력을 키우고 파당을 지어 사리를 피하기 위해 ‘식객을 기르는 것(養客)’이 유행했다. 서한 경제(景帝)에서 무제(武帝) 시기에 살았던 조우는 문필이 날카로웠고, 일찍이 어사(御史)가 됐으며, 이후 태중대부(太中大夫), 중위(中尉, 도읍의 보위와 치안을 담당), 소부(少府, 황실 사유 재산을 관리하는 기구) 등의 직책을 맡았다. 그러나 위인이 청렴하고 봉당을 맺지 않았으며, 집안에 어떤 식객도 거두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관가에서 지극히 드문 일이었다.

사료 기록에 따르면, 그는 늠름하고 절조가 있었으며 일을 처리함에 정(情)을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법령을 기준으로 삼았다.

일단 관리에게 잘못이 있으면 조우는 반드시 탄핵했고, 선물을 들고 찾아온 조정 대신들에 직면해서도 조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교란을 받지 않았다. ‘일의고행(一意孤行, 자기 고집대로 일을 처리하다)’이라는 사자성어는 바로 그로 인해 생겨났다.

그는 법령 조문에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보고 그대로 집행했으며, 확실한 증거를 중시했다.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제멋대로 확대 해석하지 않았고, 뜬소문을 믿고 아첨하며 공을 다투지도 않았으며, 왕온서(王溫舒)나 감선(減宣)처럼 권력에 영합하기 위해 남에게 죄를 얹어매지도 않았다.

조우는 만년에 법 집행이 점차 관대해져 심지어 ‘경평(輕平, 가볍고 공평하다)’이라는 미명(美名)을 얻었다. 마침내 그는 연국상(燕國相) 재임 중 늙어서 벼슬을 면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십여 년 뒤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 천수를 누렸다.

왕온서 악으로 다스려 5족에 연루되다

한무제 시대, 왕온서(王溫舒)는 학력 수준이 매우 낮았고, 소년 시절 도굴을 일삼았으며, 관직을 얻은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아첨했고 살육으로 위세를 세워 자기 집안이 나라에 필적할 만큼 부유해졌다.

왕온서 등 후기 흑리는 조우보다 더 가혹하게 다스렸다. 전통 이념을 견지한 조우와 달리 왕온서 등 흑리의 출현으로 ‘악으로 다스리는 것’이 보편적인 관리 기풍으로 변했고, 흑리의 나쁜 선례를 남겼다. 왕온서는 ‘호관지리(虎冠之吏, 호랑이 관을 쓴 관리)’라 불렸고, 살육을 좋아해 간악한 호족 천여 집안을 잡아 죽여 ‘피가 십여 리에 이를 정도’였다.

하내태수와 중위로 재임하는 기간에 법 집행이 극히 잔혹해 특하면 만 명 이상을 주살했는데, 사서는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제노(齊魯)의 호족들이 소문만 듣고도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기록했으며, 그의 정치 수단은 바로 살육에 의지해 위신을 세우는 것이었다.

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어 분수를 잃으면 내면의 저울도 기울어지게 된다. 왕온서의 명예와 이익에 대한 탐욕은 점점 커졌고, 결국 그는 죄지은 부하 관리를 숨겨준 일과 자신이 관할하던 기병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일 등 여러 죄명이 탄로나자 죽음을 면하기 어려울 줄 알고 자살했다. 마침내 본가, 외가, 처가 등 모두 5개 가문이 동시에 멸족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기·혹리열전’에 기록된 12명의 ‘혹리’ 중 9명은 제명에 죽지 못했고, 그중 왕온서의 최후가 가장 비참했다.

권력은 도덕과 양심이 있는 사람의 손에 있으면 천하를 지키는 공기(公器)가 되지만, 사심과 탐욕이 있는 사람의 손에 떨어지면 승진하고 돈을 버는 도구가 된다. 하지만 한 사람이 무엇을 했든 그 자신은 어떤 결과든 짊어져야 한다. ‘선에는 선한 보답이 따르고, 악에는 악한 보답이 따른다’는 이 말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명명(冥冥)한 가운데 존재하는 철칙이다. 옛사람이 사서에 기록해 남긴 것은 후인들로 하여금 과거를 통해 미래를 살피고 역사 속에서 지혜를 얻어 남을 해치고 자신을 해치는 일과 서로 원수를 갚는 일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다.

큰 호랑이, 작은 호랑이 모두 인과를 벗어나지 못하다

맹자(孟子)는 “화와 복은 자신이 구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선한 원인을 심으면 선한 결과를 얻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니, 복과 화는 모두 자신이 구하여 얻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묵묵히 시비를 가려 악인을 돕지 않는 이도 있고, 오직 이익만 도모하다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이도 있다.

한때 권세를 누렸던 정법위(政法委, 정치법률위원회) 고위관료 저우융강(周永康), 멩홍웨이(孟宏偉), 쑤리쥘(孫力軍), 궁다오안(龔道安), 푸정화(傅政華), 덩후이린(鄧恢林) 등은 어떠한가? 그들의 후대와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왕온서 등 흑리가 남긴 전철은 이런 정법위 광도들에게는 그저 옛 문서 속의 해묵은 옛일일 뿐이다. 그들은 현대화로 위장하고 흑리보다 더 더러운 짓을 저지르며, 장쩌민(江澤氏)과 중국공산당(중공)의 사주하에 ‘진선인(眞·善·忍)’ 신앙 단체를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부당한 구금, 세뇌반 감금, 거주지 감시, 소속 직장을 위협해 본인을 감시하게 했으며, 심지어 이 지구상에 일찍이 없었던 최악인 생체 장기적출 산업망까지 발생시켰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중공의 ‘거꾸로 30년 조사’에서 추적 조사를 가장 많이 받고 연루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정법위 인원이며, 민중들조차 “또 정법위 사람을 잡았네!”라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어떤 이는 반부패로 탐관오리를 잡는 것은 파룬파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자 박해와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 표면적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모두 “하늘에 눈이 있다”는 말을 믿는데, 만약 이것이 하늘의 안배라

면,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이러니저러니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2020년 이전에는 공검법(公檢法,公安·검찰·법원)의 큰 호랑이를 집중적으로 숙청했는데, 낙마한 이들은 주로 정법위, 공안부,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및 지방 공검법의 1인자인 저우융캉 등이다. 2021년부터 감옥 계통에 ‘대지진’이 일어나 각 성의 많은 감옥장, 감옥경찰, 성 감옥관리국 국장이 줄지어 낙마했다. 최근 두 달 내에 최소 15명의 청국장급 정법, 공안 및 사법계 고위관료가 연이어 낙마했는데, 이 중 5명의 감옥 관리 계통 관리가 포함돼 있다. 이 낙마한 관리 대부분은 파룬따파 수련자 박해에 가담한 적이 있으며 많은 이가 추적 조사 명단에 올랐다. 장쩌민 시기, 승진하고 등급을 올리려면 오직 파룬따파를 박해하는 것만이 지름길이었는데, 당시 이는 ‘잠규칙(암목적 규칙)’도 아닌 ‘현규칙(명시적 규칙)’이라 할 수 있었다. 현재 50세 이상의 관리들은 모두 선량한 사람을 미친 듯이 박해하던 그 시절을 겪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명예와 돈을 위해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으로 그 속에 가담했겠는가?

공자(孔子)는 “사람이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역사상의 흑리처럼 본래 권세에 기대어 이익을 도모하면 가족들이 삶을 누릴 수 있었으나 결국에는 수포로 돌아간 것과 같다. 중국 고대의 ‘만문초참(滿門抄斬, 온 집안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고 죽임), 가문 멸족’과는 달리 현대 사회의 생활 형태가 변해 더 이상 참수형은 없지만, 이런 정법위 관리들의 가족과 후대의 운명에는 극렬한 전환이 일어났다.

저우융캉 본인은 친청(秦城)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복역 중이다.

그의 장남 저우빈(周濱)은 18년형을 선고받았고, 친동생, 제수 및 장남 저우빈의 장모 등은 국내 자산과 회사가 모두 법에 따라 압류, 몰수되거나 동결됐다. 온 가족이 주류 사회에서 철저히 벗어나 고도로 소외되고 조심스러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쑨리훤은 일찍이 ‘돈을 pingping 써 인심을 매수’했고 뇌물 자금을 이용해 규정을 위반하면서 궁다오안 등 고위 관료 자녀들의 베이징, 상하이 주택 문제를 해결해주고 직장을 안배해줬다. 사건 발생 후, 이런 부당한 이익 제공을 통해 얻은 부동산, 관직, 특혜 등은 모두 기율검사기관에 의해 전액 몰수, 회수됐다.

1999년부터 장쩌민은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해 ‘육체적 소멸, 명예적 훼손, 경제적 파탄’ 정책을 취했다. 지금 당초 이런 악정(惡政)을 시행했던 자들은 이미 ‘부메랑 효과(Boomerang Effect)’를 맛보기 시작해 육체적으로, 명예적으로,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지혜로운 자는 사실을 직시하고 양심을 지킨다

중국 고대 역사 문화는 깊은 바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해, 비록 공산당 당문화(黨文化)가 한때 크게 유행했지만, 사람은 영성이 있는 생물이고 양심이 있기에 많은 사람이 속으로 거짓말과 세뇌에 싫증을 느낀다. 명혜망에는 수많은 공검법 기관 직원이 양심에서 우러나와 묵묵히 보호하거나 가볍게 처리하고, 나아가 직접 파룬궁수련자를 석방한 사례가 대량으로 기록돼 있다.

명혜망의 장기적인 추적과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어떤 검사는 정의로운 변호사가 제출한 무죄 변호나 수련자

의 해명 자료를 다 본 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 반력을 선택했으며, 심지어 직접 ‘불기소 결정서’에 서명해 수련자를 석방했다.

- 어떤 판사는 재판 중 공안이나 검찰 측이 “그녀는 파룬따파를 연마한다”며 정죄의 근거로 내세웠을 때 “어느 법률 규정에 파룬따파를 연마하면 해고해야 한다고 돼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 어떤 감옥경찰은 진상을 알게 된 후, 형사범이 수련자를 구타하는 것을 제지하고 연공(煉功), 법공부 조건을 제공했다.

서양의 오래된 속담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Whatsoever a man soweth, that shall he also reap)”(신약성경)라고 했다. 중국 전통문화에서는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불선(不善)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다”(주역)라고 했는데,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시간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양심에서 우리나라와 신앙을 견지하는 파룬공수련자를 보호하는 이런 공직자는 자연히 복이 몸에 임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많은 공검법 직원이 맹목적으로 증공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시무(時務)를 알지 못하고 인간 세상의 바른 요소를 무시하고 있다.

- 법률적으로 말해서, 현행 법률 조문에는 파룬따파를 ‘사교(邪教)’로 규정한 명문 법률이 단 한 조항도 없다(예를 들어 국무원 신문출판총서 제50호령은 이미 파룬따파 서적에 대한 출판 금지령을 폐지했다).

· 제도적으로 말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법 사건 처리 품질 종신 책임제’를 보면, 고집불통으로 박해를 따르는 자는 미래에 반드시 청산을 당할 것이다.

· 현실적으로 볼 때, 20여 년에 걸친 접촉 속에서 파룬궁수련자의 선량함과 진실함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예로부터 불도(佛道)를 닦는 자를 고의로 잔해(殘害)하는 자는 하늘이 반드시 그를 주살했다. ‘진선인’은 보편적 가치로 중국과 동문동종(同文同種)인 대만이든, 당파의 분열이 심각한 미국이든 파룬궁은 모두 공인과 추앙을 받고 있는데, 중국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아직도 재앙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가?

맺음말

벼랑 끝에서 위험을 깨닫고 물러나는 것이 복이다. 일각이라도 일찍 깨달으면 일각이라도 일찍 이익을 얻는다. 당신은 이런 말을 아직 기억하는가.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에 이롭다.” 지금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매우 적지만, 오늘 만약 당신이 보았다면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무엇이 진정 자신과 자손을 위하는 것인가?

진정한 중화문화는 정치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

— 오천 년 문명이 오독(誤讀)되다 —

글/ 청성(淸醒)

[명혜망]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인터넷을 열거나 중국 문화와 관련된 서적을 펴보면, 눈에 띄는 중국 문화는 마치 일련의 제도와 관습인 것처럼 보이며, 모두 사직과 왕조의 안정적 유지, 민중 삶의 기복(祈福)이나 즐거움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것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정치, 혹은 정치 주변에 속한다. 진정한 중화문화는 정치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

1. 전통문화의 함의와 핵심을 잘 이해해야

비록 전통문화 속에 불교와 도교가 있지만, 역시 국가를 다스리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극히 일부 근기가 아주 좋은 사람을 제외하고, 일반 사람들은 전통 중화문화 속에서 ‘하늘로 돌아가는 통로’라는 이런 함의를 잘 보지 못한다.

사실 리홍쑤(李洪志) 사부님 설법의 매 구절은 모두 진실하다. 중화 5천 년 문화는 확실히 하늘로 돌아가는 통로다.

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전통문화에 대해 이렇게 거대한 오해를 하는 것일까?

어떻게 이런 오해를 타파하고 세상 사람들이 중화문화를 진정으로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2. 5천 년 문명의 시작

중화문화의 역사는 매우 오래됐는데, 그중 최근 5천 년은 하나의 완전한 주기이며, 이 5천 년 문명의 시작은 바로 황제(黃帝) 군신의 치세와 회천(回天-하늘로 돌아감)이다.

우선 황제가 여러 신하를 이끌고 중화를 통일해 중화 대지를 다스리고, 민중에게 복을 가져다준 것인데, 이것이 바로 치세다. 치세에 성공한 이후 황제는 또 공동산(崆峒山, 현재 간쑤성 위치)에 가서 광성자(廣成子)에게 도를 묻고, 이산(黟山, 현재 안후이성 황산)에 가서 도를 닦았으며, 마지막에 많은 대신과 함께 용을 타고 승천했다. 이것이 바로 회천이다.

황제는 중화민족의 조상이자 중화 모든 후손의 모범이다. 황제와 그의 군신들이 행하고 이뤄낸 것은 바로 중화 후손들이 배워야 할 대상이다. 황제 군신의 치세와 회천은, 이는 중화 후손에 대한 일종의 계시이자 중화문화 성격에 대한 일종의 인도이자 규정이다.

인생 추구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을 다스리고 민중에게 거대한 공헌을 해 군주나 공신이 되는 것은 아름다운 인생의 지향점이다. 그러나 이 점을 신선이 되는 것(생사윤회를 벗어남), 회천(천국 고향으로 돌아감)과 비교하면, 당연히 신선이 되고 회천하는 것이 더욱 위대하고 의미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후대 군주인 진시황(秦始皇), 한무제(漢武帝) 등도 모두 신선이 되기를 추구했고,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천하를 헌신짝처럼 여길 수 있었다.

물론 후대의 황제(皇帝)들은 황제(黃帝)처럼 신선이 되지 못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황제만큼 높은 심성(도덕)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황제가 도를 닦을 때도 천하를 헌신짝

처럼 여기지 않고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의 치국 방법을 창시해 민중을 이끌고 상고 시대 화서국(華胥國)과 같은 경지에 진입했다. 이후 황제가 도를 닦을 때, 그의 신하 70여 명도 동시에 수련 성취해 함께 용을 타고 승천했다.

3. 5천 년 문명의 치세는 원래 회천을 근본으로 했다

황제 군신이 계승 및 창시하고 낡은 것을 밀어내고 새로운 것을 내놓은 중화문화는 전체적으로 회천을 근본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그중의 치세 부분도 회천을 근본으로 했다.

우선 중화 각종 학설의 연원에 대해 말해보겠다. 중화 상고 시대에는 각계각층이 모두 ‘도(道)’를 근본으로 삼았는데, 이 ‘도’는 삼라만상을 포괄하는 선천대도다.

다시 말해 대도에 대한 신앙 속에서 각종 업종이 생겨났다. 그중 예약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부분은 점차 전승 발전돼 후대의 유학이 됐고, 수련해 회천하는 부분(그중 일부)은 발전 전승돼 후대의 도가가 됐다. 군사, 농학, 사공(司寇-토목·건설·치수 기술), 형명[刑名-법령·형벌·명분(名分)을 다루는 통치 기술] 등도 모두 대도에서 발원했으며 또한 후대에 발전 전승됐다. 한나라 이후 중화 국가는 유학을 주체로 하고 형명을 보조로 하는 치국 시스템을 형성했으므로, 유학은 곧 중화문화에서 치세 부분의 주요 상징이 됐다. 그리고 도가 체계는 곧 수련해 회천하는 부분의 주요 대표가 됐다.

왜 중화문화의 치세 부분이 사실 회천을 근본으로 했다고 말하는가? 두 가지 측면의 주요 표현이 있다.

첫 번째 표현은 바로 치세에 종사하는 유생, 심지어 형명에 종사하는 관리, 농학이나 군사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도 본업에 종

사하는 외에 모두 겸해 배우고 도덕을 함께 닦았다는 점이다. 즉 모두 동시에 도를 배웠다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사업이 일단 순조롭지 않거나, 좌천되거나 노년에 벼슬에서 물러나면, 그들은 종종 전심으로 도를 닦았다. 그래서 중국 유생에게는 일종의 ‘유가에서 벗어나면 도가에 들어가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그들은 본래 이미 도를 배우고 있었으며, 단지 표면적인 유가 사업이 바쁜 까닭에 표현이 뚜렷하지 않았을 뿐이고, 좌천되거나 노년이 됐을 때 비교적 뚜렷하게 표현됐을 뿐이다.

또 다른 주요 표현은 바로 중화 치세학의 주요 대표인 유가, 유학의 기본 시비 평가 기준이 회천과 내재적인 일치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세계의 많은 문화에서 사회 통치, 국가 통치의 최고 기준은 종종 부의 축적과 획득(약탈 포함), 혹은 국토 점유 면적, 혹은 다른 국가의 귀속 등이다. 유독 중화문화만이 매우 명확하게 도덕을 최고이자 통솔적인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그 전개 형식은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일체가 모두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모두 덕을 닦아야 한다’는 것을 특질로 삼았다. 이 점이 바로 중화 치세 문화의 본색이며, 중화 치세 문화가 본래 회천을 근본으로 했다는(그리하여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지에 대한 내용, 가치, 방법 등을 확정함) 근본적인 표현이다.

대법제자로서 우리는 자신이 우선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대법제자가 세상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초 조건이다. 이 글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더 많은 대법제자가 이 방면에 주의를 기울여 공동으로 정진하고 중생을 구하길 바란다.



▲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조시 셔피로는 인증서를 수여했다. “리홍쯔 대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2026년 5월 13일 해리스버그 의사당 상공에 게양된 우리 국가의 사랑받는 국기를 대사님께 증정하게 돼 큰 영광입니다.” 5월13일, 펜실베이니아 주청사가 있는 해리스버그 의사당 상공에 미국 국기가 게양돼,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펜실베이니아주와 세계에 전한 파룬따파 창시자 리홍쯔 대사의 탁월한 공로를 특별히 표창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55명

■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316만 1763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